



‘초보’ 파업노동자 연합씨의 하루

난생처음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연합씨는 오늘도 오전 7시에 눈을 떴다. 일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다.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아는 연합씨는 아침을 챙겨 먹고, 언론노동자로서 최근 이슈를 놓치지 않으려고 신문을 펼쳐들었다.

노조가 준비한 파업행사에 참여한 연합씨는 8층에서 열린 장시간 회의 중간중간 책을 읽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겠다고 결심했지만 지금까지 읽은 책은 한 권에 불과했다.

연합씨는 행사를 마치고 노조 사무실에 비치된 DVD를 빌려갔다. 간단히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파업기간 투쟁에 동참하느라 극장에 갈 짬을 낼 수 없었다.

오늘은 부별 모임이 있는 날이다. 파업 프로그램이 오후 2시쯤 끝나 낮부터 술을 마셨다. 일주일 이틀꼴로 술자

리가 열리는 듯하다.

다만 파업 이전 과중한 업무에 운동을 꿈에 꾸지 못했지만, 이젠 한 주에 2~3일 운동할 여유가 생겨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연합씨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술을 마음껏 마시는 선순환이 생긴 것에 흡족했다.

연합씨는 스마트폰을 통해 수시로 노조 게시판에 들어간다. 그날 투쟁상황과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익숙지 않아 트위터로 통한 파업 홍보엔 서툴다.

이미 ‘품질’된 연합씨는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해 가정생활에 충실해지려 애쓰고 있지만, 집안일을 돕는 시간은 30분 정도 늘어난 것이 전부여서 남몰래 눈물로 반성중이다.

연합뉴스노조는 지난 5~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생활지침’ 준수 여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합원들의 생

활리듬이 깨질 것을 염려해 마련한 파업생활지침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설문에 응한 조합원 157명의 답변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지침을 준수하며 부지런한 생활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2%)이 오전 7시30분 이전에 일어났다. 아침식사는 68%가 챙겨 먹는다고 답했다. 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챙겨 보는 조합원이 52%에 달했다.

파업 이전에 64%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파업 이후엔 55%에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운동을 하고 있었다. 특히 매일 운동한다는 이가 파업 이전 0.6%에서 4.5%로 크게 늘었다.

귀가시간도 극적으로 앞당겨졌다. 오후 6시 전 집에 간다는 이가 41%, 오후 7시 이전이 20%로, 조합원의 2/3의 가량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

조합원 중 68%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이들 41%가 파업 전보다 살림을 돕는 시간이 늘었고, 심지어 11%는 살림을 전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응답자의 절반가량(48%)이 영화를 찾은 경험이 없었고, 독서량도 ‘1권’(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파업 기간 폭넓은 문화생활을 즐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1%가 노조게시판에 수시로 들어가 있으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활용하는 이는 많지가 않았다.

일주일에 음주 회수는 2회가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회(20%), 1회(18%) 순이었다. 매일 술을 마신다는 이도 14%에 달했다.

한편 귀가 시각을 묻는 항목에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답한 조합원 4명과 ‘파업기간 책을 10권 이상 읽었다’라는 2명이 있는데, 과연 이들이 누구인지 궁금케 했다.

‘2차 파업 바자회’ 수익금 100만원 돌파



노조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2차 ‘파업 바자’가 지난 1차 파업 바자에 이어 조합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열렸다.

10일 오전 10시45분 사옥 8층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2차 파업 바자에는 화장품, 주류, 가전제품,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물품이 등장했다.

안희 조합원의 유려한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바자의 테이프는 지난 바자에 이어 구정모 조합원이 끊었다.

구 조합원은 “영화를 아는 분이라면 소장 가치를 느낄 것들”이라며 베틀 블루, 자전거도독 등 DVD 10장을 묶음상품으로 내놔고, ‘물건’을 알아본 장용훈 조합원이 1만7천원에 낙찰받았다.

지난 바자에서 화장품 유통기한 논란을 빚은 노재현 조합원은 이날 중국 ‘베이징 특산’ 이과두주를 내놔다.

제조일자과 개봉상태 등 검증 공세를 받던 노 조합원은 “포장에 ‘합격’이라고 쓰여 있다”며 정품임을 강

조했다. 노 조합원의 이과두주를 신오수 조합원이 배드민턴 동호회 회식때 쓰겠다고 샀다.

이날 경매는 낙찰자가 낙찰 직후 자신이 내놓은 물건을 소개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진행됐다.

신오수 조합원은 낙찰 소감을 밝히고서 자신이 가져온 10만원 상당의 고급 배드민턴 라켓을 내놓았다.

이 라켓은 국회에 출입하는 정치부 김호준 조합원이 3만원에 낙찰받았다.

김 조합원은 “국회 지하에서 배드민턴을 하면 매번 지곤 했는데, 좋은 라켓으로 치면 이기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했다”며 필승의지를 다졌다.

김호준 조합원은 이어 “‘집에서 뭐 팔게 없느냐’고 아내에게 물었더니 아내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당황스러웠다”며 아내가 내준 프랑스제 마스크 팩과 수분크림 등 화장품을 2가지 세트구성으로 선보였다.

많은 여성 조합원들의 관심을 받은 화장품 세트 중 하나는 송진원 조합원이 2만1천원에 낙찰받았고, 낙찰 직후 비슷한 세트가 다른 조합원에게 1만원에 낙찰돼 쇼피에도 고수가 있음을 느끼게 했다.

이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경매품은 장용훈 조합원이 내놓은 북한산 ‘검은 참쌀술’이었다.

북한에서 즐겨 마시는 술이고 ‘5.24 조치’로 국내반입이 안 되는 술이라는 설명에 5천원으로 시작한 경매가는 순식간에 4만원을 돌파했고, 2만5천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실제 판매가보다 높은 5만1천원에 정아란 조합원에게 낙찰됐다.

자신의 경매품이 예상치 못했던 인기를 누리며 고가에 낙찰되자 장 조합원은 “낙찰자에게 북한 술 한 병을 더 가져다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유진 조합원이 내놓은 클로렐라와 정관장 홍삼 농축액도 큰 인기를 누렸다.

5천원에 시작된 경매는 10번 이상 값을 올려 4만1천원에 최춘환 조합원에게 낙찰됐다.

최 조합원은 “예전에 정관장 홍삼 농축액을 먹고 딸을 낳았다. 기적의 건강보조식품”이라며 파업동이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특파원도 기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맹찬형 조합원은 자신의 신간 10권을 노조로 보내 투쟁기금에 보태달라고 했다. 한 권은 경매에서 낙찰됐고 노조 사무실에서 판매가 이어진다.

배재만 조합원이 내놓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국가대표선수들이 착용했던 유니폼 하의 3종과 임화섭의 영어 주석 성경과 클래식 CD 수십종, 차지연 조합원의 플레이스테이션2 등이 경매에 부쳐져 새 주인을 만났다.

이날 바자는 점심때를 훌쩍 넘긴 12시30분께 끝났지만, 남아있는 물건들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변외 경매가 열려 끈기 있는 조합원들이 좋은 물건을 챙겨갔다.

노조는 “미수금까지 합하면 수익금은 100만원이 넘었다”면서 아직 낙찰금을 내지 않은 조합원들의 입금을 부탁했다.